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YahooFinance: 전문가들 “연준 올해 9월 말까지 현 금리 동결”
- CNBC: 연준 의장 후보 “연준은 독립성 유지해야 한다”
- JP 모건 보고서: 이란과 미국, 미·중 글로벌 최근 흐름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증시, 이틀 하락후 상승세…기업 실적 좋다
- Bloomberg: 트럼프 일시 휴전 연장 가운데 금값 다시 회복

[중동 위기]
- Bloomberg: 미 이란 교착 상태…트럼프 휴전 연장

[오일]
- WSJ: 미국의 휘발유값이 다른 나라보다 싼 이유?

[주택]
- CNBC: 주택 모기지 다시 하락 6.35%…주택 구매 신청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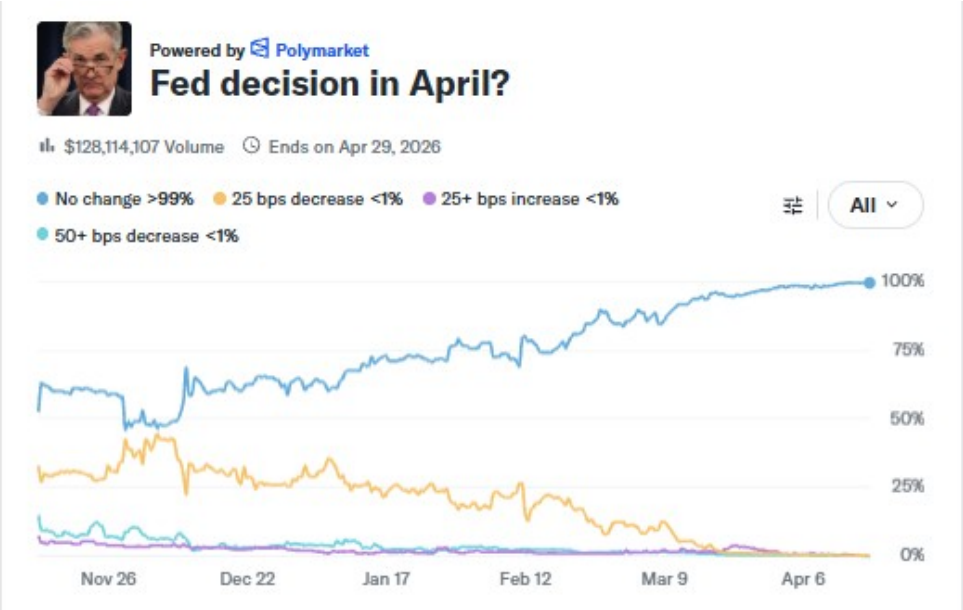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UPS, 돈 안 되는 배송 대신 ‘고수익 반품’에 집중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YahooFinance: Fed rate cut pushed back to late 2026 on war-related inflation risks: Reuters poll
전문가들 “연준 올해 9월 말까지 현 금리 동결”

- 연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다시 상승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최소 6개월 이상 미룰 것으로 보인다는 로이터 설문 결과가 나왔다.
- 설문에 답한 이코노미스트 다수는 9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3.50~3.75%)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연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하는 여전히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 최근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는 크게 약화했다.



기사

CNBC: Chair nominee Kevin Warsh says Fed must 'stay in its lane' to maintain independence
연준 의장 후보 "연준은 독립성 유지해야 한다"

- 연준 의장 후보 Kevin Warsh는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연준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본래의 주요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는 또한 연준이 여러 차례 본래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해왔다는 기존 비판을 다시 언급했다.
- 그는 "연준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며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이나 사회 정책처럼 권한과 전문성이 없는 영역에 개입할 때 오히려 독립성이 가장 크게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기사

JP 모건 보고서: Paradoxes Persist—Risk on despite stretched valuations, rising geopolitical risks and fatter left tails
이란과 미국, 미·중 글로벌 최근 흐름

- 이란 리스크 과소평가: 시장은 이란과의 제한적 합의 가능성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합의 이후 유가 급등이나 공급망 재편 등 '2차 파급 효과' 위험은 현재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 트럼프 발언 여파 통제 가능: "피크 트럼프 이후 정치적 영향력이 정점을 지났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시장은 더 이상 거친 트럼프의 수사에 휘둘리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완화된 금융 환경 속에서 정치적 소음을 뚫고 실질적 정책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 AI 투자 전방위 확산: "업스트림(AI 인플라 공급)의 도약" AI 강세장이 하이퍼스케일러(빅테크)를 넘어 반도체 소재·부품 등 업스트림(Upstream) 기업과 중·소형주, 사모 시장까지 확장되며 시장 전체의 자본 사이클(CAPEX)을 주도하고 있다.
- 에너지 안보의 전략화: AI 전력 수요 폭증에 따라 에너지 확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됐다.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오일, 가스, 원자력까지 모든 에너지원을 총동원하는 복합 에너지 정책이 주류로 부상했다.

- 유럽의 딜레마: 헝가리 선거 등으로 단기적인 정치적 안정은 찾았으나, 유럽은 진정한 의미의 단일 시장 통합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 미-중 관계는 "불안정한 휴전(Détente)": 양국 관계가 격렬한 경쟁에서 상호 타협으로 이동 중이나, 이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긴장 완화 상태다. 언제든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는 '살얼음판' 국면이다.
- 완만한 탈달러화: 급격한 탈달러화는 아니지만, 미 국채와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신흥국(EM) 통화와 지역 금리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 중이다.
- 미 대선 전망: 민주당의 하원 탈환과 공화당의 상원 장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 기조(Fiscal drift)는 계속될 전망이다.
- 미국의 자원 팽창주의: 유럽과 일본 등 중견 국가들이 회복력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그린란드 등 전략적 요충지의 자원을 선점하려는 도그마를 강화하고 있다.
- 사모 신용의 경고: 사모 신용(Private Credit) 자체는 시스템적 위험이 낮게 설계되었으나, 정보의 불투명성과 유동성 불일치 문제로 인해 시장 하락 시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는 잠재적 취약점으로 지목된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s Rise After Solid Earnings, Brent Hits $100
미 증시, 이틀 하락후 상승세…기업 실적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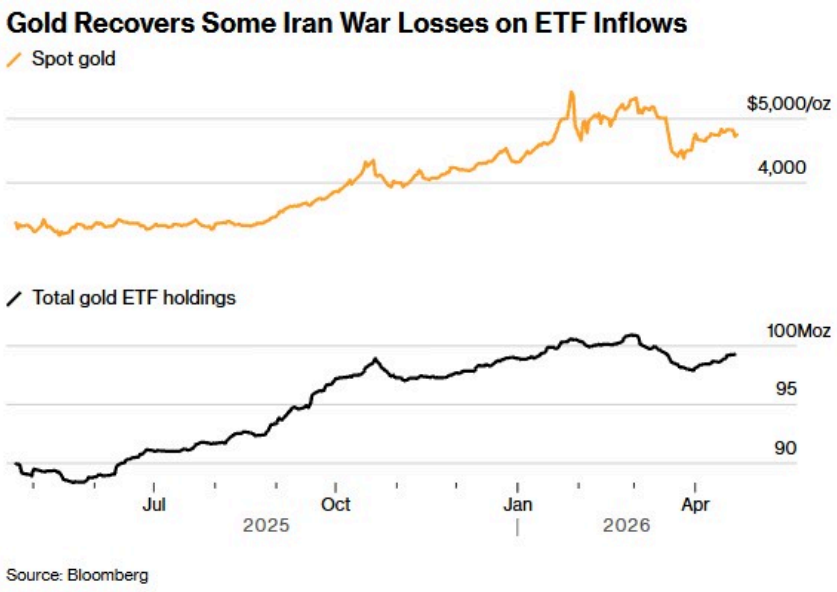
- 트럼프가 이란과의 휴전을 연장한 지 하루 만에, 강력한 기업 수익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다만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조만간 재개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갈등 해결 시도는 난항을 겪고 있으며, 유가는 상승했다.
- 주식 시장은 S&P500 지수를 2022년 이후 최고의 달로 이끌었던 상승세를 재개하며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다. 보잉은 1분기에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항공기를 판매해 주가가 올랐다. 테슬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IBM 등 다른 거물급 기업들은 수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 브렌트유는 100달러를 기록했고, 비트코인은 7만89천 달러를 돌파했다.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기사

Bloomberg: Gold Recovers After Two-Day Drop as Trump Extends Iran Ceasefire
트럼프 일시 휴전 연장 가운데 금값 다시 회복

- 금 가격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하락 이후 일부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연장하고 새로운 평화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주겠다고 밝힌 여파 때문이다.
- 금은 온스당 최대 1.1% 상승해 4,770달러를 넘었으며, 앞서 거래일에는 2% 이상 하락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앞으로 내놓고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가 군사 행동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3주간 금 ETF 자금 유입이 꾸준히 회복되면서 3월 매도 이후 금 가격 상승세를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 다만 최근 1주일간은 상승 모멘텀이 둔화됐으며, 가격이 약 4,850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는 신호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

[중동 위기]

Bloomberg: US and Iran Deadlocked Over Hormuz After Trump Extends Truce
미 이란 교착 상태…트럼프 휴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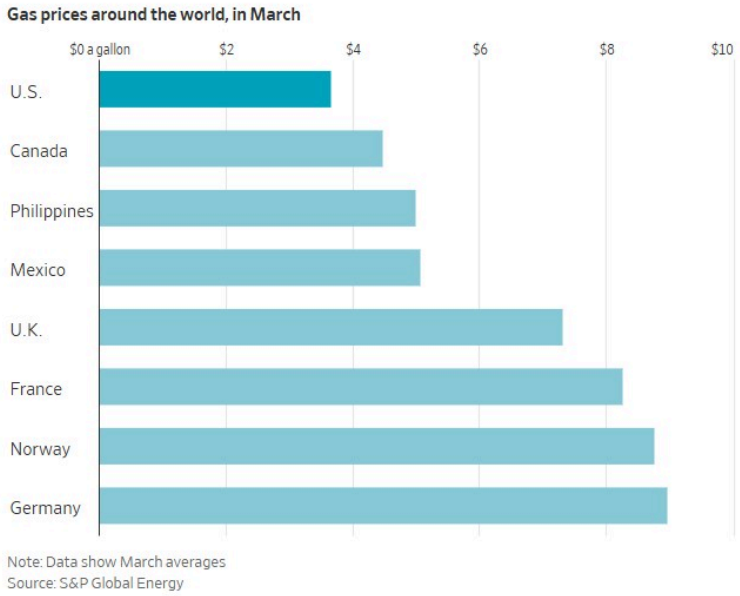
- 트럼프는 이란과의 추가 평화 회담이 무산되자 이란과의 휴전 상태를 무기한 연장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제출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끝날 때까지" 휴전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의 모든 국제 선박에 폐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핵심 해로를 통한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이 조만간 재개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기사

[오일]

WSJ: Why Gasoline Is So Much Cheaper in the U.S. Than Overseas
미국의 휘발유값이 다른 나라보다 싼 이유?

-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 휘발유 가격은 4년 만에 최고치인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미국의 기름값은 독일이나 한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덕분에 다른 국가들보다 글로벌 공급 충격에서 더 안전하다.
- 또한 이러한 휘발유 가격 차이는 주로 세금 때문이다. S&P 글로벌 에너지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유류 세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들은 갤런당 평균 3.64달러를 지급했는데, 이 중 세금은 약 60센트에 불과했다.



기사

[주택]

CNBC: Mortgage rates sink again, and homebuyers jump back in
주택 모기지 다시 하락 6.35%…주택 구매 신청 회복세

- 미 모기지 금리가 3주 연속 하락하며 주택 소유자와 구매자들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부진하던 봄 주택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도는 모양새다.
-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지난주 주택 구매와 재융자를 포함한 전체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7.9% 증가했다. 30년 만기 고정 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는 6.42%에서 6.35%로 하락했다.
- MB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휴전과 유가 하락세에 금융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금리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 주택 구매용 모기지 신청은 전주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14%나 늘어났다. 한때 전년 수준을 밑돌았던 구매 수요가 다시 반등한 것이며, 특히 정

부 보증이 아닌 민간 구매 대출이 11%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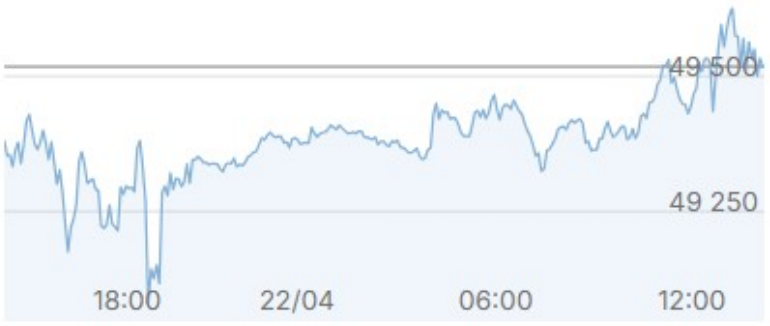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UPS Doesn’t Want to Deliver Every Package, but It Really Likes Returning Them
UPS, 돈 안 되는 배송 대신 ‘고수익 반품’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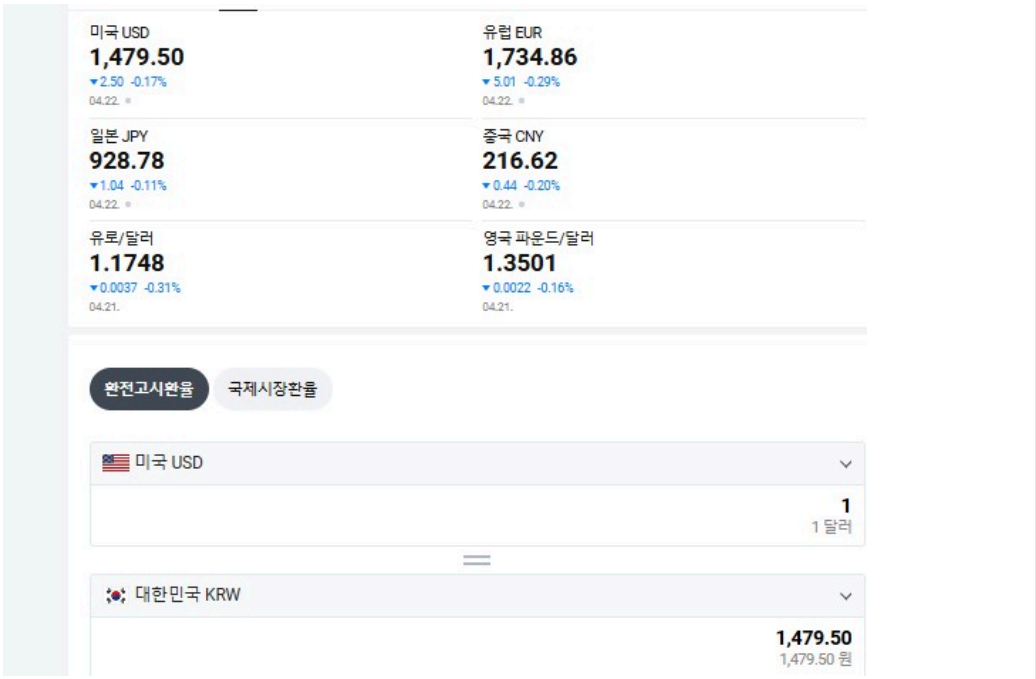
- 글로벌 물류 기업 UPS가 수익이 낮은 전자상거래 배송은 줄이고, 연간 7천6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반품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UPS 자회사 'Happy Returns'는 최근 반품 접수처를 1천7백곳 추가해 전국 1만 개의 반품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 UPS가 반품에 집중하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일반 배송은 가구별로 일일이 방문해야 하지만, 반품은 거점에 모인 물건을 한데 묶어 처리 시설로 보내는 '집약화'가 가능해 마진이 훨씬 높다.
- 이번에 추가된 거점은 동네 소형 상점부터 대형 매장까지 포함하며, 소비자가 포장 없이 물건만 들고 가도 반품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US 30	49,497.60	+348.0	+0.71%
US 500	7,121.20	+57.2	+0.81%
Dow Jones	49,497.99	+348.61	+0.71%
S&P 500	7,120.88	+56.87	+0.81%
Nasdaq	24,548.86	+288.90	+1.19%
S&P 500 VIX	19.28	-0.22	-1.13%
Dollar Index	98.35	+0.129	+0.13%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